



존경하는 교장선생님께



따뜻한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는 계절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에 혼신을 기울여 주시는 교장선생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단원고 학생 희생자 한 명 한 명을 기억하고 그들이 이루지 못한 꿈과 이상을 담아 그 뜻을 이어가고자 지난 4월 출범한 416단원장학재단에 지금까지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사, 학생 등 교육가족들의 성원에 힘입어 기금 조성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음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맨딩' 학생 발명동아리가 오백만원의 기금을 쾌척하고, 한양대 학생동아리가 바자회를 열어 기금을 전해 오는 등 우리 경기교육 가족뿐 아니라 각계의 자발적인 참여는 희생자들의 꿈과 미래가 영원히 우리 곁에서 피어나도록 온기를 더해 주고 있습니다.

'416단원장학재단'은 희생 학생들의 못 다한 소망과 마지막 순간까지 사표를 보여준 선생님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경기가족의 책무이며 자존이기도합니다. 장학재단의 기금은 경기도 내 초·중·고 학생 및 교사에게 장학금과 연구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희생자들의 뜻이 경기교육 가족을 통해 이루어지고, 다시 그들에게 귀한 선물로 전해지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후원자가 되어 든든한 장학재단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장선생님!

장학재단 기금모집에 아직 참여하지 못한 학교에서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들에게 취지를 널리 홍보하여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탁 방법은 학교에서 교직원과 학생이 기탁한 모금액(분할기탁, 일시기탁)을 일괄로 장학재단에 전달하는 방법, 홈페이지 개별참여, CMS기탁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416단원장학재단 홈페이지(www.416danwon.or.kr)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을 받다가 유명을 달리한 단원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희생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성찰하면서 그들과 그들의 뜻을 잊지 않고 우리의 책무를 잊지 않는 것이 단원고 학생들의 불행은 교육적으로 승화시키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한 해를 갈무리하며 귀교의 교육가족 모두에게 알찬 결실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서한문을 전 교직원과 학생 대표들에게 회람하여 동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015. 11. 6.

416단원장학재단 이사장 김태영 드림

